

말과 글은 문화의 뿌리 —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이영훈(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질문자 이경우(서울신문 어문팀장)

때 2017. 5. 18.(목) 곳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은 사람을 기리는 곳이다.”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박물관을 이렇게 정의한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박물관이 유물을 모으고 전시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기도 했다. 옛사람들이 남긴 물건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다시 환기시키는 말이기도 하다. 물질이 아니라 그들이 살다 간 흔적을 통해 사람의 가치와 정신을 보자는 것이었다.

이 관장은 말의 쓰임새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다. 말이 문화의 뿌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니, 문장도 사람이 주어로 오는 문장을 더 쳐 준다. 사람이 주어인 문장은 저절로 능동형이 되고 생기가 돈다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월요일은 각종 문서의 문장이 새롭게 다듬어지는 날이다. 아침 부서장 회의 시간이 국어 시간으로 바뀐다. 보고서의 비문은

난타를 당하고 쉽고 바른 말들이 대접을 받는다. ‘이들 사람’이라는 표현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라야 한다. 우리말에 ‘이들’이라는 관형사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 영어와 일본어 번역 투에서 비롯한 것이고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제 회의 시간이 국어 시간으로 바뀌는 건 흔한 풍경이 됐다.

이 관장은 박물관이 관람객들과 더 잘 소통되기를 바란다. 박물관이 관람객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여긴다. 올바른 말과 글이 이 길로 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한다.

이 관장의 고등학교 시절 미술 시험은 국어 시험 같았다. 글의 특정한 표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형태였다. 본질을 알아야 미술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술 선생님은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말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숨결새별’로 이름을 바꾼 미술 선생님은 볼펜을 ‘돌돌볼’, 만년필을 ‘솔솔볼’이라고 했다.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걸 즐겼다. 이 관장의 말은 자연스럽고 편하고 열정적이다. 숨결새별 선생님에게 받은 것들이 있다. 유쾌하게 펼쳐지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경우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엔 무슨 일이 가장 바쁘신지요?

이영훈 뭐가 특별히 바쁜 것은 아니고요. 소장품을 잘 간직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전시로 묶어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관람객들께 걸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시와 교육 또는 학습 프로그램인데, 안에서 조사와 연구 등을 잘해야 훌륭한 전시도 꾸릴 수 있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나오니까 결국 안팎으로 모두 잘 챙겨야 하지요.

이경우 많이 받으셨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취임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지요?

이영훈 외부에서 바라볼 땐 박물관이 좀 폐쇄적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더 열려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지요.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개방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의 연구자 등 전문가들을 위한 개방과 협업, 다른 공사립 박물관들과의 협력이나 연계가 중요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립 박물관이니까 다른 공사립 박물관들이 우리를 따라할 수 있는 표준이라든가, 박물관을 운영할 때 필요한 지침 같은 것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박물관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이전하기 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지금 박물관이 이것은 좀 더 내세울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이영훈 일단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시아관 같은 공간이 크게 생겼고, 전시 내용도 무척 풍부해졌습니다. 예전에 다루지 못했던 분야들도 체계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역사 부문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어린이 박물관도 생겼고, 편의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이경우 그렇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첫 시작은 언제부터였나요?

이영훈 국립 박물관은 광복 직후 1945년 12월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개관한 것이지요.

이경우 정부 출범 이전이에요?

이영훈 네, 미군정 때였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이곳 용산으로 오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기간 궁 안에만 있었어요. 덕수궁과 경복궁 안에요. 용산으로 오면서 비로소 궁 밖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궁 안에 있으면서 누리는 혜택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속박물관이나 고궁박물관이 경복궁 안에 있기 때문에 경복궁을 찾아

온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함께 찾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요. 용산으로 오면서부터 그 혜택이 없어진 것이지요. 이를테면 ‘광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궁 안에서 궁 밖으로 나왔다는 그 나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를 새로운 과거로 만드는 곳

이경우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면 박물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박물관’ 하면 아직 딱딱하다, 거리가 있다, 옛날 것만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영훈 아, 그런 인식이 있지요.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때 단체로 많이 오는데, 저부터 재미없겠더라고요.(웃음) 그렇게 박물관을 인식하는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똑같은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박물관 올 때에는 숙제 좀 주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박물관을 숙제하러 가는 곳으로 인식하면 안 되니까요.

이경우 커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영훈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이 재미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보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보고 난 느낌을 나름대로 이야기하게 하거나 글로 써 보게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시 내용이 현재와 이어져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박물관에 현재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에 와서 “아빠가 옛날엔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 박물관 전시에

서는 그런 연결 고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현재와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직원들과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국립중앙박물관보다 민속박물관을 친근하게 느끼는 까닭은 그곳에 부모들이 어렸을 때 직접 봤던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옛날과 현재를 이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경우 결과적으로 박물관은 어떤 구실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영훈 우리가 잘 아는 ‘법고창신’ 또는 ‘온고지신’이라는 말들이 있지요. 바로 이게 박물관의 신조입니다.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원자료가 박물관에 있지요. 박물관이야말로 법고창신의 원천입니다. 몇 년 전 타이완의 고궁박물관을 갔는데 그곳의 신조가 ‘올드 이즈 뉴(Old is New)’더군요. ‘올드’가 ‘뉴’라는 겁니다. 법고창신을 영어로 기막히게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이 뭐 하러 오래된 것들을 모아 놓았겠어요. 새로운 뭔가를 오래된 것에서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박물관이 그런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죠. 오래된 과거를 새로운 과거로 만드는 게 박물관입니다.

이경우 옛날 것이 곧 지금 사는 문제와 관련해 가치를 찾거나 도움을 주는 구실을 하는 건가요?

이영훈 그렇지요.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지나간 것조차도 아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겠네요.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작품들에서 뭔가를 느끼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새로운 21세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엇그제부터 ‘신국보보물전’을 열고 있는데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으로부터 한 천 년쯤 뒤 30세기 후손들은 오늘날의 21세기 작품들을 몇 건이나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할까' 하는 것이었지요. 우리가 빚어낸 그릇은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처럼 자랑할 만한가요. 요컨대 '30세기 후손들이 21세기 문화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혹시 21세기 선조들의 문화는 별 볼 일 없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국보와 보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우 너무 쉽게 만들어 가고 있나요?

이영훈 멸절한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송례문을 태워 버리기도 하고, 제대로 보존하지도 못하고, 새로 만든 창의적인 작품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물관은 사람을 기리는 곳

이경우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남긴 선인들은 문화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 시대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영훈 더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정성을 다해 만든 거겠지요. 선인들은 정성을 다해 자기 혼을 불어 넣어 마음을 담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약하다는 거예요. 돈, 경제적 이익, 이런 걸 너무 따지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이 드뭅니다. 예컨대 종교적 건축물 많이 짓잖아요. 이 21세기 종교적 건축물들이 과연 경주에 있는 석굴암처럼 천여 년이 지난 뒤에도 문화유산으로서 얼마나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공간이 박물관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이 뭐 하는 데냐고 물으면 사람을 기리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 집에서 제사 지내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박물관을 왜 만들어 놓았겠어요. 이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 시대 상황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전시품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요. 그 안에는 사람의 숨결이 스며 있고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시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옛사람과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박물관 전시이지요. 그래서 박물관은 사람을 기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박물관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훈 사람을 사장시켜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배제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물관의 글에도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이경우 그럼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말, 언어에서도 결국 사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영훈 그렇지요. 사람을 느껴야 합니다.

이경우 그래서 말을 다듬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뿌리 같은 걸 바탕에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훈 그러니까 제가 글도 되도록이면 수동태로 쓰지 말고 능동태로 쓰자고 합니다. 능동태로 써야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문이 읽혀지고 있다’보다 ‘신문을 읽고 있다’고 해야 사람이 잘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읽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신문이 읽혀지고’ 또는 ‘보여지고’라고 씁니다. 사람이 주어가 돼야 능동태가 되지요. 우리가 잘못 쓰는 게 많습니다.

이경우 사람이 중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능동형이 된다는 말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요, 정말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언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혹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이영훈 고등학교 때 훌륭한 선생님께서 배운 바가 크지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미술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혹시 ‘숨결새별’이라는 분 아세요? 성이 ‘숨결’이고 이름이 ‘새별’이에요. 원래 성함이 ‘손동진’인데 아예 바꾸셨지요. 제가 그 선생님께 감화를 받았습시다. 선생님께서 쓰신 한 쪽쯤 되는 글을 대학생 때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글 속에 한자 말은 딱 하나였어요. ‘자연’ 하나. ‘자연’만은 순우리말로 못 바꾸셨더라고요.

이경우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은 일인데 어찌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천해 나가셨을까요.

이영훈 고등학교 때 미술 시험을 보잖아요. 필기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국어 시험이랑 똑같아요. 지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유종열의 글 ‘아, 광화문이여’의 일부에 밑줄을 긋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국어 시험처럼 내셨지요.

이경우 말씀을 듣고 있으니 1970년대 《뿌리깊은나무》라는 잡지를 내신 한창기 선생의 어떤 생각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이영훈 그러실 거예요. 제가 딸이 둘인데, 숨결새별 선생님께서 제 딸아이의 이름도 순우리말로 지어 주셨어요. 세 자로요. ‘예이나’, ‘해이나’ 이렇게 지어 주셨어요. 왜 세 자로 지으셨느냐고 여쭙더니, 선생님 말씀은 원래 우리 이름이 한자식으로 바뀌기 전에는 쓰고 부르는 게 같았다는 거예요. 영어권에서 ‘툼’이라 쓰고 ‘툼’이라고 부르잖아요. ‘툼아’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훈’이라는 이름을 부르려면 ‘아’ 자를 붙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부르는 이름과 쓰는 이름을 같게 지었으니 ‘예이나야’, ‘해이나야’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예이나’라고 부르면 다른 사

람들은 이름이 ‘예인’인 줄 알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나요?

이경우 그건 모르겠지만, 설득력이 있네요. 그럴듯합니다.

이영훈 어쨌든 제가 그 선생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기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당신은 ‘볼펜’을 ‘돌돌붓’이라고 부르세요. 돌돌돌 굴러간다는 것이지요. 만년필 얘기를 하시면서 일본 사람들의 과장되고 거짓된 말을 나무라셨지요. 이걸 어떻게 만년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중국은 만년필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강필이라고 그러지요. 맞는 말입니다. 모필에 대응하는 말로서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만년필이라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만년필이라고 따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뭘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여쭘더니 술술 나오며 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술붓’이라고 하시더군요.

이경우 국가에서도 말 다듬기를 하는데, 기발한 게 안 나옵니다. 거부감이 많고요. 선생님께 도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영훈 제 친구가 또 “선생님, 치즈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라고 여쭘더니, 선생님께서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치즈는 뭐라고 하면 좋겠니?”라고 되물으셨지요.

이경우 말 다듬기가 생활 속에 배어 있으시네요. 어떻게 됐는지요?

이영훈 친구가 답을 못 하니까 선생님께서 “치즈는 뭘로 만드니? 우유지. 소젖이잖니. 뭇처럼 생겼니. 목처럼 생겼지. 그러니까 젓목이다.”라고 하셨어요. ‘젓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막히더라고요.

이경우 맞는 것 같은데,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거부감도 많이 쓰다 보면 사라질 테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러저러한 표현들이 엄청나게 대중적이고 서민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선가 하면 따라 하게 되잖아요. “그거 좋네!” 하면서요.

마애불은 벼랑바위 부처

이영훈 예전부터 고고학이나 미술사학 쪽 말들에 한자 말이 많아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쉬운 말로 바꾸려 애쓰고 있어요. 제가 1984년에 우리 박물관이 내는 ‘박물관 신문’에 선생님을 소재로 짧은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벼랑바위 부처’라는 제목이었는데, 저의 첫 활자화된 글입니다.(웃음) 요지는 선생님께서 ‘마애불’이라는 어려운 한자 말을 ‘벼랑바위 부처’라고 쓰면 좋겠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예요.

이경우 ‘마애불’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영훈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니까 우리글을 가지고 그림도 많이 그리셨어요. ‘나무’라는 글자를 실제 나무처럼 형상화하기도 하셨지요. 좋은 선생님께 배운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경우 오늘 관장님께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지방에 있는 소속 국립 박물관들을 ‘지방 박물관’이라고 부르던 것을 ‘소속 박물관’으로 바꾸셨다고요?

이영훈 흔히 ‘중앙’에 상대되는 말을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론 ‘지방’에 상대되는 말은 ‘중앙’이 아니라 ‘국가’예요.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 그러잖아요. 중앙 공무원이란 말은 잘 쓰지 않지요. ‘지방’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것이지 ‘중앙’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지방병무청이라고 그러듯이 서울도 하나의 지방입니다. 언론 등에서 흔히 수도권 대학의 반대를 지방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입니다. ‘수도권’의 반대는 ‘비수도권’이지 지방이 아니지요. 서울이 있는 수도권은 지방이 아닙니까. 이른바 서울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생각이 뿌리 깊어 박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국립중앙박물관이란

이름에 대해 반감이 있습니다. 중국에선 중국국가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지방에 대비되는 건 중앙이 아닙니다. 지방에도 중앙이 있잖아요.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13개 지방에 국립 박물관들이 있는데, 우리도 얼마 전까지 13개 소속 박물관들을 ‘지방 박물관’으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 박물관 대신 ‘소속 박물관’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거지요. 지방 박물관이라고 부르면 마치 다른 지방에 떨어져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기관 처럼 느껴지는데, ‘소속 박물관’이라고 부르면 함께 일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이라는 것이 인식의 반영이잖아요.

이경우 그럼, 반응은 당연히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지요?

이영훈 (웃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린 것이지요.

이경우 표현이나 용어를 개정하는 일도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영훈 박물관에서는 1970년대부터 고고학이나 미술사 쪽 용어 개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해 왔습니다. 2015년엔 전시품 명칭 용례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전시품을 해설하는 글들의 경우, 종전에는 평어체로 썼는데 요즘엔 되도록이면 경어체로 쓰려고 합니다. 마치 대화하면서 설명하듯이요.

이경우 우리말을 쉽게 바꾸는 작업을 벌써 꽤 많이 하셨군요.

이영훈 네, 오래전부터 그런 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의 요구도 꽤 있었구요.

이경우 또 전해 들은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도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강조하신다고요?

이영훈 제가 빨간 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웃음) 사실 30년 넘는 제 박물관 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글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남의 글을 고치는 건 정말 귀찮고 어려운 일이지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한 3년 전 경주박물관장 시절에는 ‘동원학술대회’라는 박물관의 연구자들 전체 모임에서 글 쓰는 요령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괜찮다고 하여 작년에 그걸 가지고 직장 교육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예를 보여 주면서 함께 고치자고 합니다. 예컨대 직원들에게 ‘이들 작품’이 맞느냐, ‘이 작품들’이 맞느냐 물어봐요. ‘이들 작품’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거의 몰라요. 언론조차도 잘못 쓰고 있지요. 우리말에는 ‘이들’이라는 관형사가 없잖아요. 대명사뿐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관형사로 쓰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라고 하지, ‘이들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외국어의 나쁜 영향이지요. 영어의 ‘디즈(these)’를 번역한 말투에서 온 거예요. 또 일본말 ‘고레라(これら)’에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인식의 반영

이경우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을 쓰라는 말씀이시군요.

이영훈 외국어 말투는 되도록 쓰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통하다’라는 말도 너무 많이 써요. ‘~를 통하여’ 이것도 예전엔 잘 쓰지 않던 말이고 외국어 번역 투입입니다. 예컨대 뉴스에서 “헬기를 통하여 구조했다.”라고 나와요. ‘헬기로 구조했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헬기를 통하여 구조했다’고 그래요. ‘추첨을 통하여’는 ‘추첨하여’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떤 글은 아주 짧은데도 ‘통하여’가 네댓 번 나와요. 그야말로 ‘공해’입니다.(웃음)

이경우 하하. 학교에서 그걸 지적하는 선생님이 안 계셨던 탓이겠지요.

관장님께서서는 국어 선생님보다 더 깊이 있게 교육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영훈 요즘 통제라는 말도 잘못 쓰고 있어요. “교통 통제” 또는 “부분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또는 “길이 물에 잠겨 통제되었다.”라고 들 하는데 그 뜻이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통제는 영어로 말하면 컨트롤(control)이잖아요. 막는다거나 금지한다는 뜻은 없어요. 그런데도 통행을 막는 걸 ‘통제’라고 그러니까. 방송도 신문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말이 되나요. 교통은 늘 통제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른바 교통대란이 일어나지요.

이경우 말이 안 되는 말을 쓰고 있는 거군요.

이영훈 ‘통행을 중지한다’라는 뜻의 ‘통행 중지’라고 하면 되는데 말이지요.

이경우 박물관 안내대에 수어 통역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영훈 네, 국립국어원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수어로 안내하고 동영상도 보여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동영상 서비스는 반응이 어떤가요?

이영훈 네, 아주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박물관 와서 관장님께 우리말에 대한 고견을 듣고 배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영훈 제가 우리 박물관 직원들이 글을 더욱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데는 까닭이 있어요. 경주박물관에 해마다 약 150만 명의 관람객이 옵니다. 그 가운데 반쯤이 수학여행 등을 오는 학생들이고, 학생들은 학습지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전시실에 있는 설명문을 읽고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쓴 설명문이 전시실에 걸리면 한 해에 150만 명이 읽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독자이지요. 그런데 보통 설명문을 담은 패넌을 걸면 적어도 5~6년쯤 갑니다. 그럼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읽는 셈이에요.

그것도 태반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그 설명문을 열심히 적어 갑니다. 그러니 글을 쓰는 사람은 전시실의 설명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글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써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지요. 연구직 공무원들은 자기 전공 관련 논문을 개인적으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읽는 사람은 몇천 명도 안 되는 반면, 전시실의 설명문은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읽으니까 논문보다 더 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비문 이어서도 안 되고, 쉽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글을 고칠 수밖에 없지요. “왜 사람이 안 들어갔느냐. 여기 사람을 넣어라. 되도록 능동태로 써라.”라고 잔소리를 합니다.(웃음)

이경우 관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영훈 공무원들이 ‘실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흔히 문서를 기안할 때 “국외 출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라고 써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결재하면서 “국외 출장을 다녀오하고자 합니다.”라고 고쳐 줍니다. 이게 더 좋은 말인데 안 쓰고 있는 거지요. 경주박물관장 시절에 보존 과학을 전공하는 직원이 논문을 하나 써 왔는데, “세척 작업을 실시했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척했다.”라고 고쳐 주었습니다. 이런 간명한 표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긍정문으로 쓰자고 합니다. 책 뒤에 보면 판권을 표시한 쪽이 있잖아요. 흔히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적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로 바꾸자는 것이지요. 긍정적으로 쓰면 활용도도 높아지고 대외적 이미지도 좋아지고요. 이런 말이 있더군요. “쓰기는 공적이며, 읽기는 사적이다.” 사적인 일기도 누가 볼 수가 있잖아요. 비밀일지 몰라도 쓴다는 것 자체는 공적인 행위이지요.

개인적으로 쓰든 공적으로 쓰든 쓰기는 공적인 것입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결국 책임을 진다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박물관의 모든 글은 정성을 다해 잘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글의 공공성을 잘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잔잔한 감동, 지적 즐거움, 편안한 휴식을 주는 박물관

이경우 문제 있는 표현 하나 더 들려주시지요.

이영훈 저는 ‘해외’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국내 여행에 대비되는 말을 해외여행이라고 해요. 국외 여행 또는 외국 여행이라고 하지 않고요. 해외라는 말을 왜 쓰지 말자고 하나면 이게 섬나라 말이잖아요. 영국의 ‘오버시스(overseas)’지요. 영국은 섬나라니까 외국에 가려면 늘 ‘오버시스’예요. 일본도 외국에 가려면 늘 바다를 건너야 되고요. 우리는 대륙인데 왜 해외라는 말을 굳이 쓰냐는 것입니다. 중국 여행도 해외여행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해외인가요. 통일되면 파리나 베를린까지 걸어갈 수 있고 기차 타고 갈 수 있는데 왜 해외여행이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건설이 한창일 때 해외 건설이라고 그랬어요. 국외 건설이지요. 거기도 육로로 갈 수 있잖아요. 이는 우리 스스로 섬나라를 자처하는 꼴이에요. 그런 뜻에서 ‘해외’는 반통일적인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원도 이름을 바꾸면 좋겠어요. 억지인지는 모르나 해외 문화를 국내에 홍보하는 곳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대외문화홍보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이경우 ‘해외’가 이미 굳어졌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 관장님 말씀 듣고 보니 그게 아닙니다.

이영훈 언론에서 해외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다 따라 해요. 언론에서 모범을 보이면 좋겠어요. 국립국어원에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바꿔 쓰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모든 글에 ‘누리집’이라고 써요. 국어 정책을 맡고 있는 중앙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조차 쓰지 않으면 누가 쓰겠어요. ‘로그인’도 ‘들어가기’로 바꾸라고 잔소리합니다.(웃음)

이경우 고민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영훈 국립국어원이 빨리 바꿔 줘야 해요. 다 익은 다음에 바꾸려니까 힘들지요. 새로운 말이 들어오면 바로 바꿔야지요.

이경우 네, 마지막으로 박물관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시는지요.

이영훈 무엇보다 시민들이 사랑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할 일이 크게 보아 세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잔잔한 감동, 지적 즐거움을 얻고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박물관이 됐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박물관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도 소중한 것이라는 상대적 인식도 필요합니다. 서로 같음에 기뻐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많이 퍼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경우 소중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영훈 고맙습니다.